

백두령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백두의 기상 담력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1년 12월 조선의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다.

김정은원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기백이 넘치시며 대단한 배짱을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으며 적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 빠져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와 꼭 같은 백두령장이시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공식대표는 세계인론들의 초점속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찰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평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특징은 우선 시간강적인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추운 겨울날, 무더운 여름날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을 이어가신다. 명절날과 일요일도 병사들을 찾아 현지시찰의 길에서 보내시는 때가 많다. 그 현지시찰이 며칠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찾으시시는 단위들과 만나시는 군인들에게도 한계가 없다.

특징은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현지시

찰에서 보다 특징적인것은 전락군의 싸움준비완성에 커다란 힘을 쏟고계신다는 것이다.

콜롬비아공산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지휘부로부터 시작하여 중대와 최전방초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단위들이나 다 찾아가신다.

그중에는 멀고 험한 평길을 넘어 찾으신 길은 산속의 이름없는 초소도 있고 파도세찬 바다를 헤쳐가신 외진 섬초소도 있다. 지역은 조선의 북과 남을 가른 군사분계선상, 말그대로 적들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판문점초소도 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전투준비상태나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기에 앞서 병사들의 생활부터 료해하신다.

병사들을 만나시어는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군사복무는 힘들지 않는가 등을 다정히 물어

주시며 육친의 정을 기울이신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는 김정은 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세계 진보적인 류의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수리아 디마스그총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국제사회는 김정은각하를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신 가장 훌륭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원단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에 있어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불멸의 꽃축전장에 뜨겁게 굽이친 위인 칭송의 대하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수십만명이 참관

절세위인에 대한 칭송의 꽃바다가 2월의 조국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답게 펼쳐진 속에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축전기간 43만여명에 달하는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인민군대원, 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불멸의 꽃축전장을 참관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에 만도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농업성 등 200여개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것은 절세위인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심의 송고한 표현이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축전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붉고붉은 김정일화들로 영생축원의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한평생 송고한 인민사랑으로 온넛을 불태우시며 끊임없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흘러넘쳤다.

태양의 위엄을 총대로 받들어 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는 인민무력성,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전시대들과 인민보안성전시대에도 참관자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이번 축전에 수백상의 불멸의 꽃들을 전시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전시대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불꽃을 역세대로 물려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혁명적의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건실건 제공업성, 경공업성, 봉화지도국 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에도 비껴있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전시대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온 겨레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해외동포들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결같이 힘있게 불려오시신 민중의 어버이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 뽐이였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 친선단체들과 주조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의 지성이 깃든 김정일화들을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세계 언론 들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소식을 세계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여기에 참석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변함없다고 천명하시었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어 명절을 맞는 군대와 인민을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고 하시면서 조선

인민군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침략자들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쿠바의 프렌차 라미나통신, 몽골의 몬짜메통신, 캄보디아통신, 《크레타 타임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인도네시아의 안파라통신, 신문 《폼바스》, 네덜란드 신문 《메저두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팔》, 타이신문 《방코 포스트》,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 《니혼케이이시신보》, 《아사히신보》, 《마이니치신보》, 중앙아시아

인터넷통신 씨에이-뉴스, 로씨야의 인메르확스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폼바라슈》, 《즈베라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텔레비전방송, 인터넷잡지 《렘취워》,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쁘리우르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코의 인터넷통신 노빈기, 벨스까신문 《제츠보스플라》, 프랑스의 AFP통신,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CNN 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유니베르살》, 《올머디스 노르세아스》, 《엘 문도》, 인터넷신문 《MSN》, 텔레우르

TV방송, VTV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조선친선협회, 벨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에스빠냐 마스주체사상연구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열병식 진행》, 《김정은령도자 열병식에서 축하연설》, 《김정은령도자 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고천명》, 《조선 열병식을 통해 국력 시위》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과 동영상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조국 소식

총공세의 기상으로 가설배전선공사 결속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펼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위한 가설배전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력공업성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현지를 답사하여 가설위치를 확정하는 한편 전력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키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전력망건설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강원도송배전부 설계원들은 공사초기부터 로선측량을 앞세워 현실적이며 실리있는 설계를 내놓았다.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뜨거운 마음안고 평양326건설

공장과 경성여자공장에서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공사에 필요한 전선들과 각종 예자, 차단기, 단로기 등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강원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해당 단위와의 연계밑에 생산된 100여대의 전주를 신속히 실어오기 위한 전투를 벌여 공사를 결속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 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갈 일년안고 송배전부와 원산, 문천시, 안변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립체전을 벌려 현장지휘부와 건설장들에 이르는 구간의 전주세우기와 선늘이기, 예자설치 등을 완성하였으며 수백km의 송전선공사도 진행하였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배전선공사를 결속한 그 기세로 공사장구역의 송전선시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패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표기되어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력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에 의해서도 이미 확증되대로 되였다.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우리 나라의 수많은 력사책들은 물론 《조선연안수로집》, 《단국선지》, 《지마해현지》 등 일본측 자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되어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자료들은 최근년간에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2016년에 일본에서 공개된 옛 지도인 《일본해국도》에도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어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산표시가 하나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는 계속 휘날린다

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였기때문에 애당초 측량대상에서 제외되었던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령토대역당상이라는자는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패대를 들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령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에 비해서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데 대해서 한 단 한가닥의 의문도, 반론도 있을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령토강탈행위이다.

그런데 철면피한 일본은 독도가 제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며 도발소동을

퍼우고있다.

얼마전 사람들의 레앙이 담긴 도쿄의 한복판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슨 《전시판》이라는것이 세워진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여기에 코를 들이민 오기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당상이라는자는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패대를 들고 60년이상이나 그 누구에 의해 《불법점거》되어있다는 일토당도않은 망발을 쫓아냈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의 《독도령유권》 교과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꾸며냈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 사가는 너자빙상호에서 북반단일림이 겨울철울림평기대회출전을 위한 훈련경기를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사용한것을 질고들면서 《독도의 령유권에 관한 일본의 령장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야단을 쳤다. 조선민족이 제 땅에서 하

는 국제경계에서 조선의 령토가 그려진 기발을 흔든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독도는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경계에서 보나 철두철미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따라서 통일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평화와 친선을 기본리념으로 하는 울림평기대회와 조공도 배제되지 않는다.

지금 남녘인민들은 이번 겨울철울림평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응원단이 시종일관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를 마음껏 흔들것을 보면서 《독도가 빠져 아쉬운 통일기는 대신 북용원단이 흔들었다》, 《북용원단이 독도가 들어간 통일기를 고수했다》고 하면서 가슴후련해하고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조선민족의 땅이며 국토의 일부분인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는 앞으로 계속 힘차게 퍼덕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다양하고 질좋은 가방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 평양가방공장에서 —

일본당국의 오만무례한 망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

남조선에서 련일 고조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일본수상의 오만무례한 망동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이 련일 고조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겨울철울림평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날아든 일본수상 아베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고 력설하였으며 일본대사관앞의 성노예소녀상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고 기영

을 토하였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떠벌이며 동족대결과 조선반도정세악화를 추구하였다.

이 소식은 즉시에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터넷에는 《어기가 없다》, 《무슨 량치로 간섭이나》 등 항의글들이 련일 올라왔다.

한 인터넷가입자가 올린 《견방지기 깎이 없는 일본은 스스로 파자사에 대한 반성과 숙죄부려 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미개 국가이다.》라는 글에 삼시에 1만 6000여명의 가입자들이 지지를 표시하였다.

정당, 단체들이 성명, 담화, 문명을 련이어 발표하고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이 광범히 전개되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부산지하철도로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전교조 부산지

부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의 일분령사관앞에서 일본당국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수상의 망언을 적은 종이장을 깃뚫아 쓰레기통에 처넣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아베야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자라고 하면서 과거 일본의 죄악사를 사죄하지 않은 주제에 참견질이 나 하지 말라고 단죄하였다.

성노예소녀상과 강제징

용로동자상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을 알리는 상징물이다. 이를 건립하는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념원이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트럼프와 아베의 막말에 놀리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려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